

황정민 “‘다만 악’, 캐스팅 ‘신의 한 수’...연기 구멍 없다”

“박정민 ‘유이’ 역, 비밀병기...최고의 캐릭터”

영화 홍보 위해 ‘전참시’ 등 예능프로그램 출격

배우 황정민이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호흡한 박정민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29일 이 영화에서 처절한 암살자 인남 역을 맡은 황정민이 해외 촬영 출국을 앞두고 진행한 사전 인터뷰를 공유했다.

황정민은 제작발표회 당시 박정민이 연기한 유이 캐릭터를 관전 포인트로 꼽기도 했다. 인남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유이 역의 박정민은 이 영화에서 과격 변을 감행했다.

그는 “우리가 비밀병기처럼 내놓았는데, 이렇게 막 올려놓으면 관객분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막상 봤을 때 ‘뭐야?’ ‘그렇다 봐 조금 걱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그래도 우리 현장에서는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정민이 맡은 유이 역이 이 작품 속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캐릭터라고 생각이 된다”고 힘주었다.

이어 “이 영화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정민은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고 감각적으로도 훌륭하다. 그래서 무한 신뢰가 있다. 선배로서 (박정민이) 정말 잘 해낸 것 같아 꼭 칭찬해주고 싶다”고 치켜세웠다.

배우 박정민에 대해서는 “평소에 말이 없는 편이다. 그런데 막상 현장이나 일상

에서 보면 상식이나 지식이 많고 준비를 철저히 해온다”며 “영화 현장에서 별로 말도 없고 조용하다는 것은 사전에 캐릭터 준비를 잘 해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그의 장점인 것 같다”고 흐뭇해했다.

황정민은 캐스팅이 신의 한 수인 영화 같다는 데 동의했다. 최희서, 박명훈, 오대환 등 조연들과의 호흡에 대해서도 “아마 관객분들도 이 영화 보시면 아실 거다. 소위 말하면 단 한 명도 연기에 구멍 난 사람이 없다”며 “태국에 계신 엑스트라 분들까지 모두 연기를 잘한 것 같다. 서로 각자 자리에서 너무 잘해줘서 영화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답했다.

출연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대본이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쉽고 재미있게 읽었다. 관객분들이 쉽게 영화를 접할 수 있고, 신나는 무언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욕망이 컸다”며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영화보다는 영화 속 액션 쾌감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영화를 관객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배우 이정재와는 ‘신세계’ 이후 7년 만에 다시 만났다.

황정민은 “7년 전 당시에는 처음 만나 조금 서먹서먹한 것도 있었지만 ‘어? 이

배우랑 한 번 더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도 ‘신세계’ 끝나고 나서 함께 술 마시며 ‘꼭 한 번 더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었다”며 “이정재 배우도 무조건이라고 하더라. 이후 만날 때마다 ‘우리 언제 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마 이 영화를 함께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웃었다.

영화 홍보를 위해 ‘전지적 참견 시점’,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파켓’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격한다.

그는 “배우가 자신의 영화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내가 이 영화를 홍보하고 싶은데 요즘은 예능이 아니면 홍보할 데가 없다”며 “내가 나와서 뭐라도 하면 ‘아 황정민이 출연하는 영화가 곧 개봉하나 보다’라고 시청자들은 생각하실 거다. 그러면서 한번 영화 정보를 찾아보시지 않겠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영화를 찾아보고 극장으로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출연하게 됐다”고 했다.

올 여름 한국영화 빅3로 등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힘든 상황이다. 우리 영화를 비롯한 모든 영화들이 잘 돼서 관객들과 영화업계 모두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예전처럼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에 와서 함께 드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조심하면서 성숙하고 안전한 관람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설레고 즐거워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찬란한 내 인생’ 심이영, 스태프에 ‘센스만점’ 간식차

폭염 속 고된 촬영 이어가는 팀 위해 대접



‘찬란한 내 인생’ 심이영이 스태프들에게 간식차 선물로 고마움을 전했다.

MBC TV 일일극 ‘찬란한 내 인생’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는 인물 박복희 역을 맡은 심이영은 현장에 커피차를 선물하며 깜짝 이벤트를 펼쳤다.

29일 공개된 사진 속 심이영은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 고된 촬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찬란한 내 인생’ 팀을 위해 시원하고 달콤한 간식차를 대접했다.

심이영은 “복희가 복희가 왔어요”라며 극중 박복희의 이름을 넣은 재미있는 문구로 보는 이들의 미소 짓게 만들었다.

또 “복희와 함께 찬란한 드라마 만들어가요!”라며 짧은 메시지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나문희, 59년 연기 인생 최초 액션 도전?

‘오! 문희’ 내달 말 개봉



배우 나문희가 영화 ‘오! 문희’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오! 문희’는 뺑소니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 어머니 문희와 물불 안가리는 무대본 아들 두원이 범인을 잡기 위해 펼치는 좌충우돌 농촌 수사극이다.

영화 ‘수상한 그녀’, ‘아이 캔 스피크’, ‘정직한 후보’까지 노련한 연기 내공으로

59년 연기 인생 동안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나문희의 연기 변신이 눈길을 끈다.

깜깜깜빠하는 기억력으로 아들 두원의 속을 태우지만 결정적인 순간 단서를 제공하는 어머니 문희를 연기한 나문희는 촌철살인의 대사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뛰고, 나무에 오르고, 직접 트랙터를 모는 등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던 액션 연기에 도전한 나문희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열연으로 문희 캐릭터를 한층 풍성하게 완성했다는 후문이다.

함께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아들 두원 역의 이희준은 “정말 아들과 엄마처럼 지냈다. 직접 소화하시기 힘든 몸을 쓰는 장면도 많았는데 모두 다 해내셔서 정말 놀랍고 감사했다”고 전했다. 8월 말 개봉 예정.

이승기, 리부팅 오디션 ‘싱어게인’ MC

내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서 참가자 모집

가수 이승기가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에 MC로 출연한다.

‘싱어게인’ 제작진은 “MC 이승기가 뛰어난 진행 실력은 물론이고 가수로서 누구보다 참가자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줄 수 있는 적임자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개될 심사위원 라인업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29일 전했다.

‘싱어게인’은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무명 가수, 한 편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혀진 비운의 가수, 시대를 잘 못 만난 재야의 실력자 등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

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올 하반기 방송될 예정이다.

‘뉴트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슈가맨’ 제작진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은 ‘싱어게인’에 심사위원으로 가수 유희열이 합류한 데 이어 MC에 이승기가 출연을 확정지었다.

이승기는 이날 “설 자리가 필요한 모든 가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오디션이라는 취지에 깊이 공감해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놀린 감독의 ‘메멘토’ · ‘인셉션’ 재개봉

신작 ‘테넷’ 개봉 앞뒤

크리스토퍼 놀린 감독의 신작 ‘테넷’ 개봉을 앞두고 메멘토, 인셉션 등 그의 또 다른 대표작들이 한국 관객을 다시 만난다.

우선 놀린 감독의 이름을 알린 ‘메멘토’가 제작 20주년을 기념해 8월19일 재개봉한다.

‘메멘토’는 아내가 살해당한 후, 10분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사진, 메모, 문신으로 남긴 기록을 따라 범인을 쫓는 기억 추적 스릴러로, 놀린의 첫 번째 마스터피스(결정)로 꼽힌다.

개봉 당시 유수 영화제에서 5개 부문을 수상하며 ‘현재 감독’의 탄생을 알렸다.

개봉 10주년을 맞은 ‘인셉션’도 8월12일 스크린에 걸린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등이 출연하며 2010년 국내에서 60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테넷’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한국 등 24개국에서 8월26일 먼저 개봉하기로 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북미보다 앞서 해외에서 개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현무X진세연, ‘소리바다 어워즈’ MC 확정

방송인 전현무와 배우 진세연이 ‘2020 소리바다 어워즈’ MC로 발탁됐다.

대한민국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가 주최하는 ‘2020 소리바다 베스트 케이뮤직 어워즈(2020 SORIBADA BEST K-MUSIC AWARDS, 이하 ‘2020 소리바다 어워즈’)가 오는 8월 13일 개최된다.

‘2020 소리바다 어워즈’의 MC로 합류한 전현무는 지난 2017년 시작을 알린 ‘소리바다 어워즈’ 1회와 지난해 개최된 시상식에 이어 또 한번 진행을 맡는다.

진세연은 앞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남다른 말솜씨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2020 소리바다 어워즈’에서

전현무와 MC로 만나 선보일 케미스트리 역시 이번 시상식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소리바다 어워즈’는 한류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K팝 주역들이 참석해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상식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일부 무대에 폴 샷을 비롯해 다양한 앵글에서 촬영한 멤버별 영상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멀티캠(Multicam) 기능을 도입, 스타들과 한층 가까이에서 교감할 수 있을 예정이다.